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멜버른 출장자료

Contents

【 목 차 】

I. 호주 국가 개황	1
II. 무역관 관할지역 개황	3
III. 체류 참고자료	5
IV. 호주 역사	10
V.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11
VI. 호주 경제동향	15
VII.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27



1. 호주 국가 개황

1. 일반 현황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오세아니아(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77.5배) - 전체 면적의 18%를 사막으로 지칭, 실제 35%가 건조지역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
행정구역	6주(state) 2準州(territory)
수도	캔버라
인구	2,496만명
주요 도시 (인구)	시드니(523만명), 멜버른(496만명), 브리스번(246만명), 퍼스(206만명), 아들레이드(135만명)
민족	유럽계(85%), 아시아계(12%), 아프리카계(2.5%), 기타(0.5%)
언어	영어(공용어), 기타 400여개의 언어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7%), 이슬람교(2.6%), 불교(2.4%) 등
사법체계	영국식 사법 체제를 따름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실권자, 자유연립당) -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연립당이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호주는 의원내각제로 총리 임기 없음)

2. 지도 및 국기

○ 지도 (6주(state) 2準州(territory))



○ 국기





II. 관할지역(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주) 개황

빅토리아주(VIC)

1. 일반 현황

- 면적 : 22만 km²(한반도 면적과 비슷)
- 인구 : 646만명(호주내 2위)
- 주도 : 멜버른(Melbourne)
 - 주수상(Premier) : 다니엘 앤드류(Mr. Daniel Andrews, 노동당)

2. 산업특성

1) 호주 바이오, 정보통신 산업, 교육의 중심지

- 빅토리아주에는 세계 탑10 의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
 - 국제적으로 유명한 메디컬기업 Cochlear Implant, Bionic Eye 본사가 소재
- 호주 최대 정보통신 기업이 위치하며 온라인기반 서비스 산업 발달
 - 통신업계를 선도하는 Telstra 및 호주 3대 온라인기업 Carsales, Seek, REA Group이 멜버른을 기반으로 성장

2) 호주 전체 수입시장의 25% 이상 점유

- 멜버른항은 호주 최대 규모의 수입통관 항구(호주 컨테이너 물동량의 36% 커버)
- 인구 밀집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주별로 독자적인 상권 구축(시드니 상권과는 별개)

3) 과학기술 관련 산업의 발달 및 연구개발 활발

- 빅토리아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 멀티미디어 및 IT산업 거점화 육성 추진
 - 게임, 핀테크 산업의 발달 및 Data-61, NBN Co,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센터가 멜버른에 위치
- 호주의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인 CSIRO 본부 소재

남호주주(SA)

1. 일반 현황

- 면적/인구 : 98.3만 km² / 173만명(호주내 5위)
- 주도 : 애들레이드(Adelaide)
 - 주수상(Premier) : 스티븐 마샬(Mr. Steven Marshall, 자유당)

2. 산업특성

1) 호주 조선산업의 주축지

- 조선업 성장에 적합한 위치와 시설·기술의 결합지로 호주 내 가장 큰 조선 산업의 주축지이며 '21년 Offshore Patrol Vessel(호주 해군 잠수함) 출항 예정

2)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활발

- 남호주정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적극 지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소 완공, 대규모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

타즈메니아주(TAS)

1. 일반 현황

- 면적 : 6.7만 km² / 인구 : 52만명(호주내 6위)
- 주도 : 호바트(Hobart)
 - 주수상(Premier) : 윌 호드만(Mr. Will Hodgman, 자유당)

2. 산업특성

1) 1차 산업의 주요 생산지

- 일반작물(감자, 완두콩, 콩, 당근 등 야채와 과일), 수산물(연어, 굴, 전복 등)의 주요 생산지로 품질이 호주에서 가장 우수하며, 일반작물의 생산은 타즈메니아의 경제 활력의 주요 요소임

2) 호주내 풍부한 천연자원량 보유지

- 타즈메니아는 호주 전역 중 다양한 지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단위 지역당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III. 체류 참고자료

1. 비자 및 출입국

□ 비자

-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전자비자(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ETA 비자는 반드시 호주 내무성 공식 ETA 온라인 신청 페이지(www.eta.homeaffairs.gov.au)에서 해야 함

<호주 내무성 ETA비자 온라인 신청서>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 입국절차

-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카드)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음.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 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됨. 참고로 호주에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하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됨
- 2016년 6월 20일부터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은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함.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캐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이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 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 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	 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 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 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

자료 :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

2. 멜버른 지역 기후

- 방문기간 중 멜버른의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한 멜버른의 날씨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음. 즉, 한국의 봄·여름은 멜버른의 가을·겨울임. 멜버른은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겪을 수 있다’는 말처럼 기온차가 큼. 항구도시인 만큼 풍속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은 편임
 - 가을, 겨울에는 바람막이 및 패딩 점퍼가 필수이며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 햇빛 차단용 모자와 선크림을 수시로 바를 것을 권유함. 햇볕이 따가운 여름에는 탈수현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 필요

<멜버른 월별 평균 기온>

(단위 : °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	20.2	18.3	15.3	12.8	10.4	9.9	10.8	12.4	14.3	16.8	18.2
최고	25.8	26.1	23.8	20.2	17.0	14.2	13.7	14.8	16.9	19.6	21.6	23.9
최저	14.2	14.4	12.9	10.5	8.7	6.7	6.2	6.9	8.0	9.4	11.1	12.6

3.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AUSD10,000(USD\$7,000) 이상 현금 휴대 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신고서 기재 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특히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되며,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중요)
- 통관 중 입국 신고서에 미신고 품목 적발 시 벌금(최하 AUD 900)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통관 수속이 지연됨
-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됨
- 담배 25개피 또는 시가(cigars) 25그램 이상 반입 불가

4. 환율 (2019.8.20. 기준)

- AUD 1.00 = USD 0.68 / KRW 818.32(원) (2019.8.20. 기준)
- 호주 내 미화는 통용되지 않으므로 호주화 환전은 필수이며 한국 내 환전이 유리함
- 호주 내 환전은 소액의 경우 은행과 환전소의 차이가 없음

5. 팁, 카드결제 관련

-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불 시 평균 식대의 10% 이하가 일반적임
- 카드결제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아멕스나 다이너스를 거부하는 곳도 일부 있음
- 호텔, 레스토랑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약 0.3%)를 지불하는 곳이 많음

6. 전화사용

- 공중전화 : 기본 50센트(시내)
- 한국으로의 전화
 - 다이얼: 0011-82-지역번호-전화번호/수신자부담전화 : 1800-88-1820
- 긴급 전화 : 000(화재, 경찰신고, 구급차 등)

7. 시내 교통

- 대중교통수단 : 트램(Tram)
 - 구간별 요금적용 : 기본요금 AU\$4.40(2시간내 무제한 이용 가능), 하루 24시간 무제한 이용가능(Daily Fare Cap) 주중 AU\$8.80, 주말 AU\$6.30
 - 교통카드 : 편의점 또는 뉴스 에이전시에서 Myki 카드구입(AU\$6.00) 후 충전하여 사용
 - 노선도 : 시내 Tram 정류소(호텔내 안내 리플렛 등)
- 택시 : 전화로 예약
 - 택시요금 : (낮) 기본요금 AU\$4.20, AU\$1.622/Km 부과(한국 대비 3배 수준)
 - 택시전화 : 13-2227(13Cabs), 13-1008(Silver Top), 13-2211(Arrow)

8. 기타 특기사항

- 인터넷 사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호텔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나 별도 사용료(보통 A\$20~30/1일)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 전압은 240볼트, 50Herz임.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시, 삼각 플러그(일명 돼지코)가 필요함
- 호주에서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금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차량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미이행시 약 30만원의 벌금을 징수함

9. 멜버른 시내 주요 식당

구분	식당명	전화	주소
한식	Dooboo (북창동 순두부)	0406 712 475	261 Swanston St, Melbourne
한식	Guhng (궁)	03 9041 2192	19 McKillop St, Melbourne
한식	Bornga (백종원 본가)	03 9650 8878	1/178 Little Bourke St, Melbourne
한식	Mahn doo (만두)	03 9670 1167	365 La Trobe St, Melbourne
양식	Rare Steakhouse	02 9663 3373	6/6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양식	Meat&Wine Co.	03 9696 5333	Freshwater Place, 3 Queensbridge St, Southbank
양식	Gradi Crown	03 9696 9888	Crown Towers Melbourne, 8 Whiteman St, Southbank
중식	Shark Fin Inn	03 9662 2681	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베트남식	Mama's Buoi	03 9671 3426	Postal Lane, 350 Bourke St, Melbourne
퓨전식	Lucy Liu Kitchen and Bar	03 9639 5777	23 Oliver Lane, Melbourne
카페	Higher Ground	03 8899 6219	6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IV. 호주 역사

□ 유럽인 출현 이전

- 호주 원주민(Aborigine/에보리지니)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 대륙과 근접하였던 6만년 전부터 거주해 왔으며 몇 백 개의 소규모 종족으로 구성,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전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1788년에는 백인이 호주의 주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1800~1900년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인에 의해 호주 대륙이 발견되었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 이 동부 해안인 BOTANY BAY에 상륙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함
- 그 후, 1788년 필립 함장이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수)의 1차 이주민을 인솔하고 호주에 도착,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 1823년부터 죄인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 6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40년부터 죄수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진행, 1857년에는 23,623명에 달함. 중국인의 급증으로 유럽인은 중국인들의 하인계급으로 타락한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기도 함

□ 1901년 이후(연방)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6개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의회가 멜버른에 설치됨
- 1913년 CANBERRA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하여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56년에는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함. 1971년에 OECD에 가입, 1975년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에서 독립하였고, 2018년 자유연립당의 Scott Morrison이 31대 총리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름

V.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 그레이트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 : 왕복 총 10시간



멜버른 남서쪽의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토키(Torquay)에서 론(Lorne), 아폴로베이(Apollo Bay), 포트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 와남불(Warmanboul)에 이르는 300km의 해안길로 해식작용으로 형성된 온갖 형상의 바위섬과 절벽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며 타임지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함

1919년 공사가 시작되어 앵글시(Anglessea)에서 아폴로베이 구간까지 1932년에 완공된 곳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호주 정부는 퇴역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안선이 아름다운 이곳에 삽과 곡괭이만으로 공사를 하여 세계적 명소를 탄생시켰음

포트캠벨 국립공원의 12사도(Twelve Apostles)는 석회암으로 형성된 해안이 거센 파도에 깎여 아치형 통로가 생기고 다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12개의 작은 바위섬이 예수의 열두제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이곳은 지금도 해식작용에 의해 매년 13cm씩 깎여나가고 있음

포트캠벨은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1800년대 영국과 멜번을 오가던 160여척의 선박들이 근처에서 침몰했음. 특히 로치아드 조지(Loch Ard Gorge)는 영국의 로치아드(Loch Ard)호의 이름을 딴 곳으로 1878년 3개월의 항해 끝에 멜번에 도착, 정박을 눈앞에 두고 Muttonbird Island의 절벽에 부딪혀 난파되어 54명 중 19세 승선자 Tom과 18세 승객 Eva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곳임

□ 필립 아일랜드(Phillip Island) : 왕복 총 5시간



필립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27~33cm 크기의 난쟁이 펭귄의 서식지로, 해가 진 이후 저녁나절에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정겨운 펭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펭귄의 귀가 시간은 계절마다 상이하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함

□ 소버린힐(Sovereign Hill) : 왕복 총 4시간



1851-1861년의 골드러시 시대를 재현해 놓은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으로, 실제 지하 금광을 따라 탐험할 수 있음

중국인 마을과 채굴광, 광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리에 걸린 간판이며 소품이 모두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며 일부 가게(Bakery 등)는 현재 상업을 하고 있음

□ 단데농마운틴 퍼핑빌리 (Dandenong Mountain Puffing Billy)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데농 마운틴에는 산림지대를 통과하는 100년 된 증기기관차 퍼핑 빌리(Puffing Billy)가 있음

출발역인 벨그레이브 역을 출발하여 종착역인 켄부르크 역까지 약 1시간 20분을 달리며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원시림을 달리는 기분이 색다름

□ 플린더스 스테이션(Flinders Station)



호주의 최초의 기차역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모두 이곳을 종착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고풍스러운 인도풍의 건물로 멜버른 방문 시 꼭 한번은 접하는 곳이며, 2004년 국내에서 방영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페 CF 촬영지로서도 알려져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음
역 맞은편의 연방광장(Federation Square)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많고 약속 장소로도 유명함

□ 로얄 보태니컬 가든(Royal Botanic Garden)



19세기 중반 조성된 화원으로 전체면적이 약 36ha(4만평)인 호주 최대 규모를 자랑함
원래는 시내외곽에 위치한 습지대였으나, 지금은 멜번 중심에 위치한 도심 공원으로 유명하며, 영국식 정원 설계에 따라 건설되었음
빅토리아주 총독 관저(Government House)가 공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Shrine of Remembrance)이 공원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878년부터 오픈하였음
시장 이전에는 공동묘지였으나,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임

□ 유레카 타워(Eureka Tower)



유레카 타워는 높이 297.3m로 남반구 가장 높은 전망대이자,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용 건축임
88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멜버른 정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꼭대기 층의 Edge에서는 투명한 유리 바닥 밑으로 지면을 볼 수 있어 스릴이 넘침
1850년대 골드러쉬 시절의 멜버른의 명성을 말해 주듯 건물 꼭대기는 24K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유레카'라는 이름은 골드러쉬 시절 영국의 혹독한 세금정책에 반발하여 광부들이 일으킨 호주의 유희 충돌인 "Eureka Revolution"에서 따옴

□ 피츠로이 정원(Fitzroy Garden)



멜버른 시내 서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빅토리아주가 뉴사우스웨일스주(NSW)로부터 분리될 당시 NSW주 총독인 찰스 피츠로이(Charles Fitzroy)경의 이름을 따랐으며 하늘에서 보면 영국의 유니온잭의 모양을 따라 공원 내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음



1993년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콕(James Cook) 선장의 영국 생가를 분해, 모든 벽돌을 그대로 운반해 와서 이 정원에 복원하였음. 이곳에서 18세기 영국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이 보관되어 있음

□ 세인트 패트릭 성당(St. Patrick 's Cathedral)



1858년 착공해 약 70년에 걸쳐 1940년 완공된 세인트패트릭 성당은 호주의 가장 훌륭한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며, 당시의 예술적 기교와 솜씨를 볼 수 있는 곳
호주에서 가장 높은 성당(105m)이며, 청회색 사암(블루스톤)을 사용하여 건축되어 독특한 색의 외관을 자랑함

VI. 호주 경제동향

1. 호주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및 무역 규모

연간 GDP	USD 1조 3,887억 (14위)
GDP 연간 성장률	2%(28년 연속 GDP 성장), 세계 13대 경제 규모
1인당 GDP	USD 55,707(10위)
실업률	5.2%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 (AUD)
환율	AUD 1.00 = USD 0.68 / AUD 1.00 = KRW 818.32(원)
외환 보유고	USD 47,851백만(2018.4월)
교역 규모	수출: USD 2,336억 (2018년)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 수입: USD 2,105억 (2018년)
대한 교역 규모	○ (대한) 수입(2018년) : USD 9,610백만 (-51.6%) - 주요 품목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건설중장비, 축전지 등 ○ (대한) 수출(2018년) : USD 20,719백만 (8.1%) - 주요 품목 : 철광·유연탄, 천연가스, 가축육류, 광물류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2018), 호주 통계청(ABS 2018), Global Trade Atlas(2018)

□ 호주 경제의 특징

○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 위주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7%를 차지
-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보험, 건설, 의료, 교육, 관광 등 발달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

구분	농림수산	광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2.6%	6.4%	8.1%	6.3%	76.6%

자료 : Australia Benchmark Report(AUSTRADE 2019)

○ 광업 부문

- 광산붐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 자원 부문 투자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의 투자 여파로 건설업, 인프라 개발 등 연계 산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광물 자원 수출은 약 1,562억 달러로 호주 전체 상품 수출의 67.7% 차지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0%), 생산량 세계 4위(7.0%)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28.0%), 생산량 세계 1위(37.0%)
- 매장량 세계 1위 : 금(18%), 우라늄(29%), 아연(29%), 니켈(26.0%) 등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동(매장량 2위), 은(매장량 2위) 등

주: 2019.7월 확인

자료 :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2017)

○ 농목축업 부문

- 농목축업 생산 및 수출 대표국가로 호주 전체 GDP의 2.6% 비중(508억 달러)

☞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 밀 : 80억 달러, 27백만톤 생산(수출량10위)
- 소고기 : 85억 달러, 2,169천톤 생산 (수출 1,020톤, 세계 2위)
- 보리 : 24억 달러, 2백만톤 생산(50%수출)
- 양고기 : 26억 달러 / 양모 : 25억 달러
- 카놀라 : 21억 달러, 2.4백만톤 생산
- 우유 : 47억 달러, 9,239리터 생산
- 면화 : 20억 달러

○ 동부 해안 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인구의 77%, GDP의 77.8% 점유

〈호주 주요 주별 인구비중〉

구분	NSW	VIC	QLD	기타
GDP 비중 (인구)	31.9% (798만명)	25.9% (646만명)	20.0% (501만명)	22.2% (550만명)

자료 : 호주 통계청(ABS 2018)

□ 최근 호주 경제동향

- 호주 경제성장률, 2019년에 주춤하나 점차 회복할 것
 - 1992년 이후 매년 평균 3.2 % 성장한 호주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경기 침체를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선진국이었으나, OECD는 2019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2.28%로 예측해 소폭 하락세로 진단
 - 호주통계청(ABS)은 호주 경제가 기록적인 연속 성장을 보였지만, 2019년 1분기 1.7%의 경제성장률에 머무르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Global Finance Crisis)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발표
 -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 광업, 정보통신 등 일부 분야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임업, 건설, 제조업 등 주요 분야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호주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급등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음
 - 호주중앙은행(RBA)는 호주 수출 시장의 견고한 성장과 광산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가 국내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통적인 광물부국이자 농목축산업 강국인 호주 경제 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 호주는 4차 산업인 기술·지식 집약적인 서비스(정보통신 기술(ICT), 금융, 보험, 교육, 관광업)를 국가 경제 주도 로드맵으로 설정
 - 광업 및 에너지, 농식품, 금융 서비스, 교육, 관광이 호주 5대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며 경제 성장을 견인
- 한국 기업 시사점
 - 한-호주 FTA 적극적 활용
 -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 돌입
 - 호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우리의 경쟁 국가인 일본('15.1.15), 중국('15.12.20)의 FTA가 발효되고, TPP가 타결('15.10.5)에 따른 FTA 관세 인하로 이점이 상쇄되어 가격 경쟁 심화
 - 호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로 해당 3개 국가와 호주의 무역은 호주 전체 교역의 40.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호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호주 정계 반응이 있으며 이들 3개국에 대한 호주의 상품 수출은 총 수출의 56.1%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수출은 전체의 24.4%를 차지함
- 호주 정부 경제 부양정책 활용
 -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인 호주 정부 경제 부양정책을 활용, 관련 프로젝트 및 투자에 참여 고려
 - 바이오, IT, 핀테크, 디지털 헬스, 에듀테크 등 4차 산업 육성 및 문화 교류 적극 활용

〈호주 주요 경제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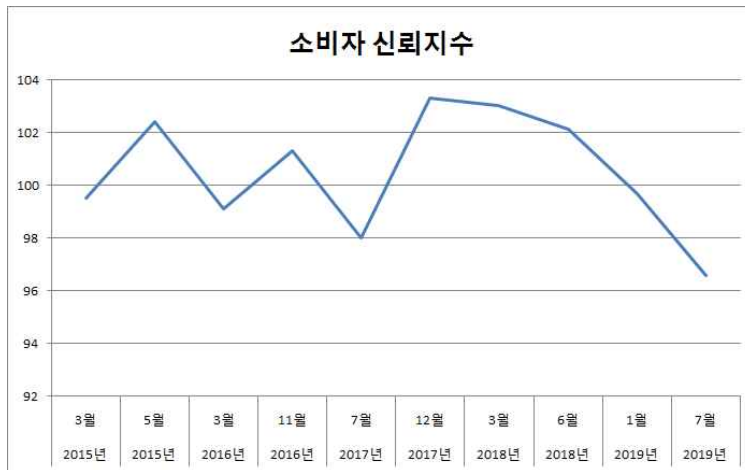
항목	OECD		RBA		NAB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경제성장률(%)	2.28	2.52	2.00	2.75	1.70	2.30
민간소비(%)	2.60	2.85	2.00	2.75	-	-
소비자물가지수(%)	1.57	2.26	2.00	2.00	1.68	1.85
실업률(%)	5.14	5.13	5.00	5.00	5.20	5.30
A\$/US\$ 환율	0.71	0.70	-	-	0.72	0.75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중앙은행(RBA), 내셔널호주은행(NAB)

- 농·수산·임업, 건설, 제조업 등 주요 분야의 부진
 -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
 - 중국 경제 의존성이 크며, 이는 중국의 경제침체와 조정국면이 호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침체 또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2019년 1/4분기 호주 경제성장이 2018년 4/4분기 대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일부 농촌 지역에 지속된 가뭄으로 2018-19년에 밀 등 농산물 생산과 수출 저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부문별 동향
 - 2019년, 민간소비심리 약화
 - 2018년까지 100 내외를 유지하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19년 1월

99.6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2월에서 6월까지 지속 100선을 유지하였으나 7월 현재 96.5로 크게 하락

-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가계 부채 증가로 민간 소비심리 하락세 전망
 - ▶ 소비자 신뢰지수 : 99.5('15.3)→102.4('15.5)→99.5('15.8)→101.3('16.2)→99.1('16.3)→101.1('16.8)→102.4('16.10)→101.3('16.11)→99.7('17.3)→97.99('17.7)→95.5('17.8)→97.9('17.9)→101.3('17.10)→99.7('17.11)→103.3('17.12)→105.1('18.1)→102.7('18.2)→103.0('18.3)→102.4('18.4)→101.8('18.5)→102.1('18.6)→99.69('19.1)→ 96.5.8('19.7)



자료 : Australian economic reports(Westpac)

- 주요 수출시장 경제둔화로 금리인하 지속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 11월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 실시, 2016년 7월 금리를 1.75%로 인하한데 이어 2016년 8월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 2019년 6월과 7월 추가로 0.25% 씩 인하를 감행하면서 2019년 7월 현재 1%의 역대 최저 금리가 이어짐
 - 낮은 금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 침체 지속
 - ▶ 금리추이 : 2.25%('15.2)→2%('15.6)→2%('15.9)→2%('15.12)→2%('15.9)→2%('16.4)→1.75%('16.5)→1.75%('16.7)→1.5%('16.11)→1.5%('17.3)→1.5%('17.7)→1.5%('17.10)→1.5%('17.12)→1.5%('18.3)→1.5%('18.5)→1.50%('19.1)→1.25%('19.6)→1.0%('19.7)

- 호주달러 가치 변동성 심화
 - 지난 10년 사이 호주 달러화 가치 변동 심화
 - ▶ US\$ 대비 A\$ 추이 : 60%(2004)→110%(2012-13)→90%(2014)→70%(2015-19)
 - 2013년 4월까지 1.02~1.04 미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던 호주달러는 2014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임
 - 2016년 1월 0.69 미달러까지 하락한 호주달러는 2017년 1월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초 0.79 미달러까지 올라섰으나, 2019년 7월 현재 다시 하락하여 0.69 미달러 수준을 유지
 - ▶ US\$1 / A\$1 : 0.7634('15.3)→0.7680('15.6)→0.7010('15.9)→0.7306('15.12)→0.7140('16.2)→0.7522('16.7)→0.7398('16.11)→0.7420('17.5)→0.7581('17.7)→0.8000('17.9)→0.7878('17.10)→0.7658('17.12)→0.7790('18.3)→0.7564('18.6)→0.7199('19.1)→0.6910('19.7)
- 호주 실업률 2020년까지 5%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15년 초 실업률은 6.4%까지 상승했지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활성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로 2017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5% 대를 유지
 - ▶ 실업률 추이 : 6.3%('15.7)→5.9%('15.12)→5.8%('16.1)→5.7%('16.7)→5.6%('16.10)→5.9%('17.4)→5.5%('17.5)→5.6%('17.7)→5.5%('17.10)→5.4%('17.12)→5.5%('18.2)→5.6%('18.5)→5.0%('19.1)→5.2%('19.7)



자료 : 호주 통계청(ABS)

○ 호주 교역 동향

- 주요 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순이며 호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호주 경제에 강한 영향력 발휘
- 주요 12개 교역국 중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위치
-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ASEAN 회원국,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10건의 FTA 협약 체결
- 2019년 1~5월 호주 교역 규모 전년 동일분기 대비 1.06% 가량 증가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미화 억달러)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1~5월
	전체	3,882	3,818	4,525	4,841	1,983
1	중국	1,028	1,050	1,255	1,433	622
2	일본	446	411	499	582	231
3	미국	325	304	318	330	140
4	한국	247	210	317	276	101
5	인도	113	116	160	165	57

자료 : Global Trade Atlas

2. 한-호 무역 동향

□ 한호 교역 추이

- 2018년 대 호주 수출은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6% 감소, 수입은 209억 달러로 8.1% 증가, 무역수지 111억 달러 적자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1~6월
수출	7,501(-30.7)	19,862(164.8)	9,610(-51.6)	3,832(-24.4)
수입	15,176(-7.7)	19,149(26.3)	20,719(8.1)	9,906(1.4)
무역수지	-7,676	702	-11,109	-6,0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6년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급감하였으나, 2017년 현지 LNG 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특수선박 및 시추대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수출 실적이 대폭 개선됨. 석탄, 철광, 석유가스 등의 수입은 증가하여 수출입 실적이 안정세로 전환
- (수출품목) 2017년 대 호주 LNG 해양플랜트(FRELUDE 북서부 해안) 및 선박 수출로 수출액 급증 한편, 2018년에는 전년대비 51.5% 감소로 전환
- 2017년 한국의 대호주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LNG 프로젝트 관련 해양구조물 및 선박 수출은 단발성으로 2018년에는 관련 자재 등의 수출로만 이어져, 전년대비 전체 수출규모는 대폭 감소
- 제트유 및 등유,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 일부 석유제품 및 중장비, 축전지 수출은 증가, 반대로 승용차, 경유, 휘발유 등은 감소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2019.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2,229	19.2	2,119	-4.9	977	-10.7
2	경유	1,982	72.3	1,804	-9.0	562	-42.8
3	제트유및등유	1,103	115.7	1,555	40.9	453	-48.1
4	휘발유	969	-4.2	733	-23.4	227	-34.2
5	합성수지	146	25.8	168	15.4	61	-29.1
6	건설중장비	126	25.4	163	29.2	51	-38.7
7	축전지	140	38.6	138	-1.4	85	12.8
8	수산화나트륨	124	52.4	129	4.0	45	-47.4
9	알루미늄제품	111	46.3	116	4.3	52	-10.8
10	기타석유제품	88	92.2	105	19.6	43	-29.9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2019.1~6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품목)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니켈과 및 스크랩, 동과 및 스크랩 등 스크랩 전반 수입 감소
- 호주 3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사업이 2018년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함에 따라 생산 및 공급량 증가,

한국의 對호주 수입 증가에 영향

- 2018년 천연가스 수입량은 2017년 대비 46%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호주 수입 품목 2위에 오름

<대호주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2019.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5,361	44.7	5,422	1.1	2,842	6.8
2	천연가스	2,912	63.5	4,250	46.0	1,709	-7.9
3	철광	3,585	26.4	3,405	-5.0	2,032	17.7
4	가축육류	1,165	0.3	1,247	7.0	694	5.3
5	원유	638	22.7	811	27.1	217	-8.9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38	-8.7	729	-1.2	343	7.3
7	아연광	422	52.7	624	47.8	140	-57.5
8	기타금속광물	417	19.2	564	35.2	279	-10.6
9	동광	604	4.4	475	-21.3	177	49.5
10	당류	794	17.9	432	-45.6	149	-32.5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2019.1~6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3. 한-호 투자 동향

□ 한국의 대호주 투자

- 2018년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4건(86백만 달러) 기록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제조, 전기가스 및 도소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투자금액 기준 광업 15백만 달러(17.4%), 제조업 5백만 달러(5.8%), 전기 및 가스 4백만 달러(4.7%), 도소매업 4백만 달러(4.7%) 순
- 한국의 대호주 투자 누계(1980-2018)는 신고기준으로 1,912건, 200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49억 달러(74.5%), 부동산 및 임대업 22억 달러(11%), 제조업 8억 달러(4%), 운수업 6억 달러(3%) 순

<한국의 대호주 투자 추이>

(단위 : 미화 천달러, 건)

연 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7	120	53	155,372	142,816
2008	141	57	653,568	579,940
2009	127	34	1,246,186	235,865
2010	100	34	764,173	562,795
2011	87	32	4,114,669	1,352,607
2012	78	23	4,406,856	2,195,793
2013	62	17	1,577,322	1,334,326
2014	66	11	806,578	1,497,498
2015	68	11	657,540	808,632
2016	115	35	1,594,170	847,140
2017	93	23	532,524	680,131
2018	24	4	86,432	122,13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대호주 진출기업은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55개사 진출

☞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 공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 자원개발 : 포스코, 한전,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자원, 썬메탈코퍼레이션, 한국중부발전, 한화마이닝, 현대제철 등
- 종합상사 : 포스코인터네셔널,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GS 글로벌, LG상사, 롯데상사
- 현지판매법인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현대모비스, 대우전자, 대한전선, LS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농심, 넥센타이어, 이노션월드와이드, GS 건설, LG 화학, 아모레퍼시픽, 애터미, 한화큐셀, 모트렉스, 롯데면세점 등
- 식품 : CJ 뉴트라콘
- 서비스업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홈쇼핑 등
- 의료제약 : 뉴트리바이오텍, 오스템, 바텍글로벌, 엘엔케이바이오메드
- 건설 : YG-1, 대구텍 호주법인, 일진호주, 삼성물산(건설), 포스코건설
- 물류 : 팬오션멜버른사무소, 글로벌비스, 판토스, 현대상선
- 금융 :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 방위/방산 : 한화디펜스
- 철도차량 : 현대로템
- 비료 : 슈퍼퍼트동부
- 화학 : 유한양행

□ 호주의 대한 투자

- 2018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총 33건으로 신고기준 20억 미달러 기록, 신고금액 전년 대비 14배 이상 대폭 증가
- 2018년 對한국 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17년 전무했던 운송용 기계 부문에 대한 투자가 17억 미달러로 대폭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 역시 전년대비 268배 가량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 정보통신,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018년 호주의 직접 투자는 미국(28.3%), 영국(16.1%), 뉴질랜드(3.7%) 등 영어사용국에 48%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0.9% 가량임.
- 호주의 대한 투자는 과거 Macquarie Bank와 같은 일부 기업의 활동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최근엔 일반제조업 IT, Biotech, 헬스서비스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임.

<호주의 대한 투자 추이>

(단위 : 미화 천달러,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고 건수	27	21	29	31	45	26	33
신고 금액	152,569	50,282	139,832	85,193	79,157	142,330	2,007,35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VII.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1. 멜버른 무역관

- 주소 :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 전화 : +61-(0)3-9860-0500 / 팩스 : +61-(0)3-9860-0509

2. 개설일자 및 법적지위

개설일자	법적지위	인원(명)		
		본사	현지	계
1973.08.15.	외국정부기관	2	9	11

3. 관할지역 :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State 등 3개 주

4. 직원 및 기타 연락처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관 장	변용섭 관장	+61-3-9860-0501	무역관 업무 총괄
부 관 장	예광호 과장	+61-3-9860-0502	마케팅/조사/취업, 기획예산
* 멜버른 영사관	김성효 총영사	+61-3-9533-3800	-
	손경자 영사	+61-3-9533-3813	-

/끝/

www.kotra.or.kr